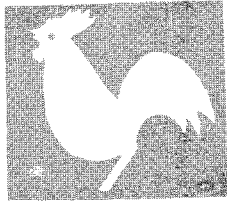


# 대한양계협회 소식



## 닭질병 및 유통에 관한 세미나 개최

- 2월 1일 10시, 본회 제 1회 양계 세미나 -

최근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닭질병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양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유통에 관한 본회주최 1979년도 제 1회 양계세미나가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신문회관에서 한협종계장과 동남축산센터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본회의 금년도 사업방침에 따라 유료강습회로 바뀐뒤 처음 실시된 이날 강습회에는 100여명의 양계인이 참석하여 시종진지한 강청과 열띤 질의로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는 오세정 (전대교수 대한양계협회 회장), 황인옥 (서울시 농축과장), 이창림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씨로 이날 오세정 회장은 「양계산업의 당면과제와 전망」에서 현재 처해있는 업계의 심각한 불황과 정부의 축산물수입 정책실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계인들의 협동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으며 황인옥 과장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과 유통문제」에서 도계유통은 먼저 종로구, 중구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창림 과장은 백신수급계획은 차질이 없이 원활히 공급될 것이며 질병퇴치를 위해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전 양계인들이 방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줄것을 촉구하였으며 박근식과장은 위생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체점검실시의 중요성에 관해 피력하였다.

# 대한양계협회 소식

## 부화업계 불황에 관한 간담회

- 비축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일간지 광고  
계재기금 조성키로 -

양계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불황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준영 (한협총계장 대표), 이진일 (삼일농장상무) 강세춘 (한일농원상무), 김영환 (천호부화장전무) 이보연 (삼일농장 대표), 양동환 (서울축산대표) 박만후 (천호부화장 상무), 신정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씨가 자리를 모은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속 하락되고 있는 산물시세와 함께 초생추의 값도 계속적으로 폭락, 채란, 육계, 부화 부문 모두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번 불황은 이대로는 종식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전제 되고 이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비축과 소비촉진, 장기적으로는, 생산제한 방안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 실시방법이 거론되었다.

특히 이날 집중논의된 단기대책중 비축과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계재를 위해 모든 양계업계가 협조무드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협회는 시급히 비축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축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 늦어도 3월중순 까지는 비축을 실천하며 일간지에 광고 계재를 위해 각 농장별로 기금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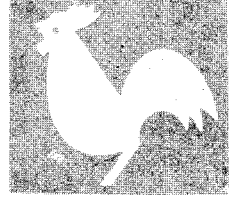
## 방역과 소비촉진, 유통개선에 역점

- 오세정회장 축산기자회와의  
회견서 밝혀 -

본회의 금년도 사업방향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전 축산인에게 보도하기 위한 축산기자회와 본회 오세정회장과 회견이 지난 19일 오후 3시 부터 각 축산관련 잡지사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오세정 회장은 본회의 금년도 모토가 "더욱 인화" "더욱유신" "더욱약진"





임을 밝히고 조직확대, 회원권익보호, 양계산물 소비촉진강화, 연구조사, 기술지도, 검정사업, 방역위생, 자율정화 운동 등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설명과 기자들의 질의를 받았다.

### 본회, 79년도 서정쇄신 추진 회의 개최

- 오회장, 무사안일 배제, 공사분명, 인화. 단결 지시 -

본회는 지난 2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협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79년도 서정쇄신 추진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본회 오세정 회장은 농수산부 산하단체 서정쇄신회의의 결과를 지시 하달하는 한편 무책임, 무사안일을 배척하고 공사분명, 인화, 단결 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서정쇄신 업무추진에 최선을 할 것을 지시했다.

### 부화. 종계기술 강습회 개최 예정

- 2월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

본회는 현재의 부화, 종계의 관리 개선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에 감안 부화, 종계 기술 강습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2월 28일(수) 오후 2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본 강습회는 現Chick master 기술 고문인 Hans. Van. Leer 씨가 강사로 초빙되며 오진양행(대표: 정진국)에서 후

원할 예정이다.

본 강습회는 관련 기술인은 물론 경영인도 참석하여 충분한 질의 응답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금년도 제 1회 검정위원회 개최

- 2월 3일, 대전지장에서 -

지난 2월 3일 국립종축장 대전지장에서 금년도 제 1회 닭경제능력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3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중간성적 검토와 더불어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될 제14회 산란계 검정계획을 검토하였다.

본회의 닭경제능력검정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오세정(본회 회장, 건국대 교수)

오봉국(서울농대 교수)

박근식(가축위생 연구소)

송찬원(농수산부 축산과장)

정선부(축산시험장)

김춘수(과학 기술연구소)

강만식(국립종축장 대전지장장)

민덕기(본회 부회장)

최창해(본회 채란분과위원장)

박병희(본회 육계분과위원장)

# 대한양계협회 소식

## 갑종 및 고등감별사 가격시험 실시

- 3월10일, 단합대회도 함께 갖을 예정 -

본회 감별분과 위원회(위원장 : 조성철)에서는 오는 3월10일 오전 9시 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 1회 갑종 및 고등감별사 자격시험을 개최한다. 또한 이 날 감별인들의 인화와 친목도모를 위해 감별사 단합대회도 함께 갖을 예정이다.

## 본회, 한국양계인명록 발간예정

- 협회 중심으로 전 양계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도모, 각종양계정보교환, 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계인의 결속 나아가서는 전 양계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국양계인명록을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각도지부 본회, 계우회, 단지 및 회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배부한바 있으며 3월10일까지 작성 완료 본회에 제출 하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 본회, 구정을 맞아 국군장병에 계란전달

- 軍과 民의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 -

본회는 구정을 앞둔 지난 1월27일 작년

12월 1일부터 벌인 연말, 연시 국군장병에게 계란 보내기 운동에 직접 본회로 접수된 성금으로 계란 4,700개를 구입하여 안양 모 인근부대에 전달하였다.

이로서 본회가 전개한 국군장병에게 계란보내기 운동은 10개지부와 계우회의 참여로 기간중 총 76,117개의 계란과 닭 200수 및 기타위문품을 인근군 근부대 전달군과민의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본회 양계산물 시세 엽서 발행

- 생산자 보호에 역점두어 주 2회정도  
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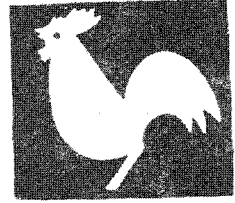
그동안 회원을 비롯한 모든 양계인들의 요청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한 시세엽서의 발행을 준비해 오던 본회의 지도조사부는 지난 2월 5일 시세엽서를 첫 발행, 양계인들에게 우송해 주므로써 생산자들의 정확한 가격 파악을 돕게 되었다.

년 3,000원으로 구독료를 확정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이 시세엽서는 우편엽서를 이용하며 시세변동이 있을 때 즉시 통보하는 양식으로 되어있다.

## 대한양계협회 포천분회 78년 정기총회 개최

- 본회장에 원승재씨 피선 -

본회 포천분회(포천군 포천면 신읍리



정기총회가 지난 2월12일 본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총회는 78년도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이 있었다.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원 승재

부회장: 임성진, 김태호

감사: 양동환, 박기복

이사: 오창권, 이기완, 이중남, 유창만  
김만호

## 사료영양분야 양계강습회

### - W. ROP 박사 초청 -

본회는 미국의 사료영양전문가인 월드롭 박사를 초청하여 3월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양계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SA(미국대두협회)와 USFGC(미국사료곡물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강습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3일(화) 대구지역

3월 14일(수) 부산지역

3월 15일(목) 서울지역

## 제 1 회 방역대책협의회 개최

### -방역대책기구 설립협의-

지난 2월23일 오후 3시 본회 회의실에서 제 1 회 방역대책협의회가 오세정회장, 이창림과장(농수산부 가축위생과) 박근식과장을 비롯한 업계인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오세정회장은 현재 양계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계산물의 유통개선(비축사업및 소비촉진사업)사업과 방역사업임을 강조하고 자율방역을 위한 업계의 단합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또한 이창림과장은 닭질병이 국제화되는 추세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도 무척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생산자들이 결속하여 자율방역을 하루빨리 이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식과장(가축 위생연구소)의 주재로 진행 되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전염성기관지염, 감보로, EDS, 아테노바이러스질병등의 새로운 국내 발병가능성이 크며, 사료첨가제규제를 현실화해야하고 추백리발생근절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또한 종계장, 양계장뿐만 아니라 사료공장의 위생방역강화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근식과장은 현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IB와 감보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어 국내발생여부가 금년중에 확실히 밝혀질 것이며 EDS도 내년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자율방역은 지역공동방역제도(monitor system)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뜻있는 부화장과 종계장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회원제를 채택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방역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